

## 주요 내용

### ■ 금융시장의 단기부동화 현상과 과제 ■

#### □ 최근 동향

- (대우채 환매 사태 이전의 현황) 대우채 환매 사태 발생 우려로 인해 11월 중순까지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 및 은행의 금전신탁 감소분 등 약 100조 원(공사채형수익증권 약 80조 원, 은행신탁계정 약 13조 원, 회사채 상환분 약 6조 원)의 자금이 단기부동화되었음
- (최근 단기부동화 현상 완화) 최근 주가 상승과 함께 단기부동화 현상이 크게 완화되고 있어,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화되어갈 것으로 예상됨

#### □ 단기부동화 현상의 폐해

- (금융시스템 혼란) 단기부동화 현상의 심화는 거액의 자금을 한꺼번에 대이동 시킴으로써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의 대이동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영 악화도 불가피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음
- (기업 자본구조 취약) 기업의 단기금융 의존도가 커져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단기화되며, 단기부채 비중이 증가하여 기업의 자본구조가 허약하게 됨

#### □ 해소 방안

- (구조조정 마무리)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단기부동화 자금의 흡수를 위한 안정적 투자 대상(예; 30년 만기채 발행)의 개발 등이 필요함

## 금융시장의 단기부동화 현상과 과제

천 일 영

- (대우채 환매 사태 이전의 현황) 대우채 환매 사태에 대한 우려로 11월 중순까지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 및 은행의 금전신탁 감소분 등 약 100조 원(공사채형수익증권 약 80조 원, 은행신탁계정 약 13조 원, 회사채상환분 약 6조 원)의 자금이 단기부동화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단기 대기성 자금과 맞물려 100조 원 이상의 돈이 단기부동화되어 자금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발생했었음

### < 단기부동화 조장 요인의 증분 >

(99년 6월 말~11월 중순까지의 증분)

회사채순증분 (△상환 - △발행)	공사채형수익증권	은행금전신탁	합계
-6.1조 원	-78.3조 원	-13.0조 원	-97.4조 원

- (최근 단기부동화 현상 완화) 그러나 최근 주가 상승과 함께 단기부동화 현상이 크게 해소되고 있어 연말 금융시장의 혼란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들어 주식시가총액이 6월 말의 260조 원에서 11월에는 320조 원으로 약 60조 원 정도 증가함에 따라 대우채 환매 사태 이전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은행권의 약 4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단기성 저축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부동 자금의 향방에 따라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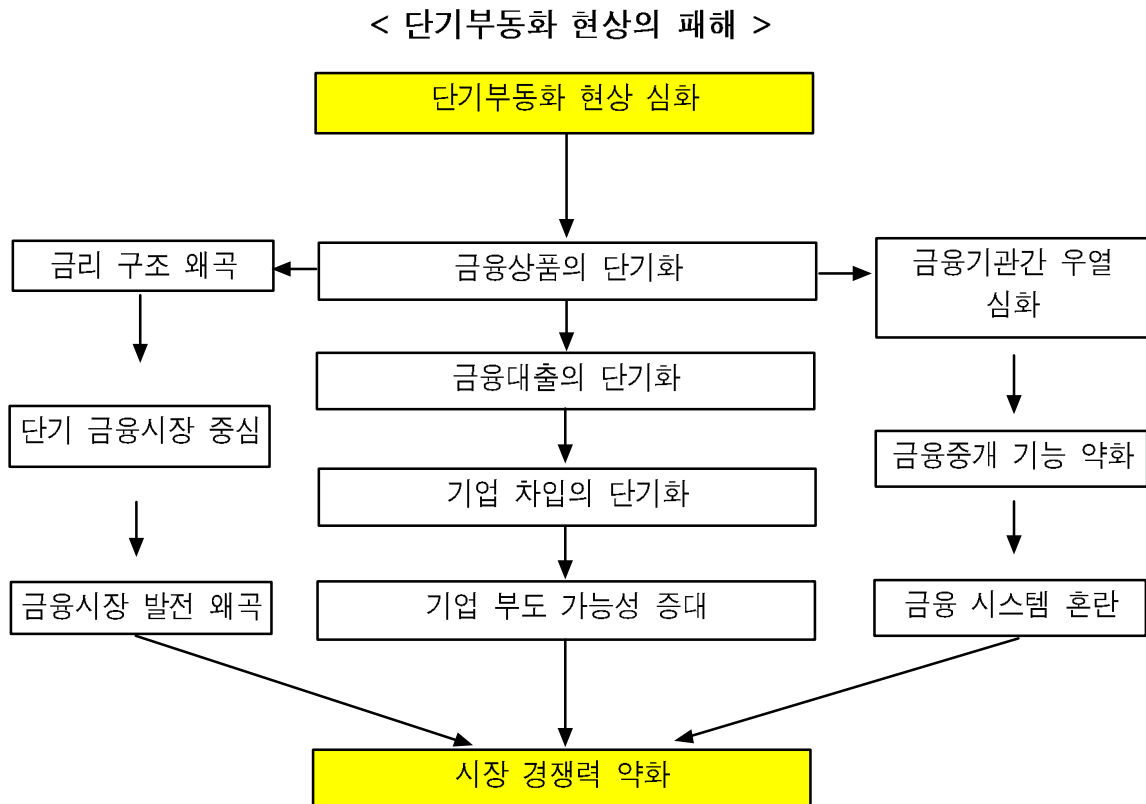
**< 단기부동화 해소 요인의 증분 >**

(99년 6월 말~11월 중순까지의 증분)

단기성저축예금	주식형주식증권	주식시가총액	유상증자규모	합계
38.4조 원	27.0조 원	61.1조 원	8.6조 원	135.1조 원

- (단기부동화 조장 요인) 추가적인 대우채 관련 환매, 투신사 뮤추얼 펀드의 만기 도래, Y2K문제에 따른 일시적 현금 수요 증가 등으로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음
  - (연말 환매 증가 예상 규모) 특히 연말 결산을 앞두고 일반기업체들이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부동자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 147조 원 규모인 공사채형 수익증권 중 17~18%는 일반 기업체들이 투자한 것이어서 최고 25조 원 이상의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음
  - (뮤추얼 펀드 만기도래) 연말이 되면 뮤추얼 펀드의 만기 도래로 인해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이탈도 예상됨
  - (Y2K현금 수요 증가) Y2K(컴퓨터 연도 인식 오류)관련 현금수요도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연말 현금 수요는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융권에서 현금이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음
  
- (단기부동화 해소 요인) 대우채 환매 사태 이후 투신의 수익 증권도 금융당국의 강력한 안정 대책에 힘입어 당초 투매 우려와 달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그 동안 단기 부동화된 자금의 상당수가 주식시장의 활황과 함께 산업자금으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공모주 청약 예상 규모) 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공모주 청약이 연말까지 약 5~7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음
  - 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에 12조 원이 몰린 것을 감안하면 30조~4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증시·코스닥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
  - (공적자금 추가 투입) 연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약 20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임에 따라 금융권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크게 감소할 전망임

- (단기부동화 현상의 피해) 단기부동화 현상의 심화는 거액의 자금을 한꺼번에 대이동시킴으로써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의 대이동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영 악화도 불가피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을 혼란시킬 우려도 있음.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단기화시켜 단기부채 비중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자본구조를 취약하게 함



- (금융시장 혼란 가중) 단기부동화 현상의 심화는 금융기관의 자금 이동 속도를 심화시켜 금리를 불안정하게 함
- 특히 금융상품간 자금 이동을 심화시킴에 따라 기형적 금리 현상을 초래함
- (금융시스템 불안 가중) 단기부동화 현상의 심화는 금융기관간 자금 이동을 부추겨 금융기관간의 우열은 물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을 혼란시킬 수 있음

- 
- (기업의 자본구조 약화) 단기부동화 현상의 심화는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을 풍부하게 만드나, 장기대출자금의 부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단기화시킴으로써 부실(부도)의 가능성을 심화시킴
  - (단기부동화 현상의 해소 방안) 단기부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불안을 먼저 해소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및 단기부동화 자금의 흡수를 위한 안정적 투자대상(예 30년 만기채 발행)의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부동자금의 선순환 유도) 부동화된 자금을 방치하여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보다는 금융불안 해소를 통해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장기자금을 공급해 주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함
  - (채권시장 기능의 회복) 회사채시장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단기부동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채권시장의 시장분할, 즉 양질의 채권이 거래되는 정상적인 채권시장과 부실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임
  - (안정적 통화정책 운용) 인위적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통화량 정책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함께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의 개발(예; 30년 만기 채권발행 등)로 단기부동자금의 흡수가 필요함

([iycheon@hri.co.kr](mailto:iycheon@hri.co.kr) ☎ 724-4013)